

#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영어영문학과	파견대학	Camosun College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캐나다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이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Camosun College의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Advisor이 입학허가서 (incoming exchange application)를 작성해달라는 메일과 함께 같이 첨부해야하는 여러 서류들, 숙박 방법 및 보험과 중요 일정 등을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입학허가서**가 제일 중요한 서류이므로 자세하게 말을 해보자면, 입학 허가서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됐는가?’, ‘개인 정보’, ‘현재 한국 주소’, ‘다니는 대학교 (Home Institution) 주소’, ‘듣고 싶은 수업’, ‘추가 연락망’ 정도가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빈칸이 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소 같은 부분은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작성 시에 변환된 그대로 작성하면 외국에서 주소를 작성하는 방법과 달라지기 때문에 Address, City, Province, Country, Postal Code를 잘 확인하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다 썼다면, 다른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여권 사본, 학업 성적 증명서,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학업 성적 증명서**는 CLC 3층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꼭 -영문-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어학 능력 서류**는 제 Tofel 성적표를 이용하여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 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여권을 그냥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이 필요한지 몰라서 재발급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재발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입학허가서를 작성해달라는 메일을 보내준 어드바이저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일단 원래 여권으로 제출하고 재발급 받은 다음에 천천히 다시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메일 답장하기로 보냈었습니다.

입학허가서가 나왔다면 이제 **수강신청**을 위하여 듣고 싶은 수업을 확정지어야합니다. Camosun College 같은 경우는 Mycamosun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기, 원하는 분야, 위치, 시간 등 선택해서 찾으면 잘 나와있습니다(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요!).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랐다면 그대로 교환학생 담당 어드바이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어드바이저가 시간표에

Catalogue Advanced Search

Term:  Meeting Start Date:  Meeting End Date:

Courses And Sections

Subject:  Course number:  Section:

Subject:  Course number:  Section:

Subject:  Course number:  Section:

[+ Add More...](#)

Days Of Week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Location

Academic Level

수업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수강신청까지 도와주시고요! 저는 중간에 수업을 변동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드바이저한테 장문으로 수업을 어떻게 바꿔주시면 좋은지에 대하여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Camosun College에 포함된 두개의 캠퍼스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위치와 시간 잘 확인해서 수업을 확정지으시면 됩니다!

ACCT-110 Financial Accounting 1 (3 Credits)

Add Course to Plan

Students will complete all the steps of the accounting cycle culminating in the preparat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sole proprietorships. Topics include: accounting principles, cash, receivables, inventory, capital assets, current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Requisites:

One of: C in English 12 C in English Studies 12 C in English 12 First Peoples C in Literary Studies C in ENGL 091 and ENGL 093 C in ENGL 092 and ENGL 094 C in ENGL 092 and ENGL 095 C in ENGL 092 and ENGL 096 C in ENGL 103 and ENGL 104 C in ENGL 142 C in ELD 092 and ELD 094 C in ELD 097 C in ELD 103 and ELD 104 C in ENGL 090 - Must be completed prior to taking this course.

One of: C in Foundations of Math 11 C in Pre-calculus 11 C in MATH 077 C in MATH 137 C+ in MATH 072 C+ in MATH 075 C+ in MATH 135 - Must be completed prior to taking this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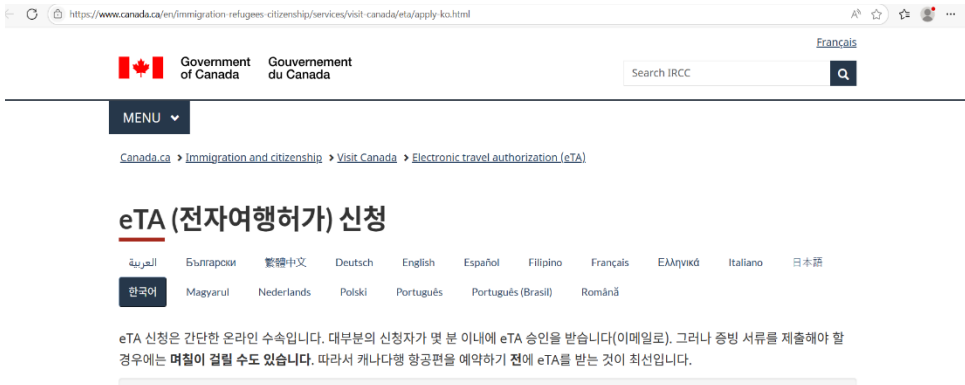
Typically Offered:

All Terms

신청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업 확정이었는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설명들을 보다보면 **요구사항 (requisites)**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구사항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고르려고 하니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없고 해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때도 어드바이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고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고르라는 답변을 받아서 마음 편히 여러 수업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헛갈리거나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어드바이저한테 메일 보내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해외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은 캐나다 비자 면제국이기에 때문에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딱 교환학생 기간동안만 해외에 있으려고 하다보니 대충 계산해 봤을 때 5개월 정도만 캐나다에 있을 예정이었기에 eta라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광

비자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Eta는 6개월 미만까지 인정해주고 따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바를 해보고 싶거나 좀 더 여행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신 분들은 학생 비자나 여행 비자를 따로 준비하셔야합니다! Eta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eta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꼭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게 되는 경우 돈이 더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선택하라는 것과 한국 주소 등을 잘 작성하시다보면 30분도 안 되어서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한국돈으로 7천원이고 신청이 잘 되었다면 보통 72시간 안에 승인 메일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승인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Eta 비자의 유효 기간은 5년이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자 신청은 혹시 모르니 한달 정도 텀을 두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권과 캐나다에서 머물 숙소입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었고 왕복 항공권으로 티켓을 끊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격도 저렴해지고 입국심사 기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할 때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지가 정해져있어야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소** 같은 경우, Camosun College는 학교 내에 기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근처에 집을 구하셔야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나 어드바이저가 보내주는 메일에도 홈스테이를 하는 집들을 올려주는 사이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의 집이

- 특수 목적 임대 시장의 **평균 공실률 및 임대 시장 가격**

온라인 목록

다양한 공공주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 **크레이그리스트** · **렌탈스카**
- **키지진** · **로**
- **오프 카우선 학생 숙** · **중고 빅토리아**
- **소** · **UVic 주택 등록부**
- **메드매너** · **임대 및 부동산 관리 회사**
- **학생 4일 수업**

**참고사항** : 이는 공개 웹사이트이며, 카우선 칼리지는 숙박 시설을 검사하거나 집주인과 면담을 하지 않습니다.

단기 또는 임시 숙박 시설

장기 거주지를 찾는 동안 임시 숙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지를 직접 찾아보면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숙소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호텔** : 호텔은 일반적으로 개인실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에 있어서 그곳으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집 사진과 위치, 집주인 연락처 등 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할 때에나 다른 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캐나다 집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교환학생에 합격이 되었다면 집은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빅토리아 섬으로 들어가려면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페리도 미리 시간 맞춰서 예약해놓으셔야 합니다. 다만, 페리는 배이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연되거나 연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보험** 신청과 **통신사**입니다. 저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갔습니다.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 카톡에 슈퍼셀이라고 치면 중간에서 통신사와 연결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꽤 유명해서 외국에 나가실 때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슈퍼셀에서 추천해주신 통신사인 Virgin을 이용하고 실물유심이 아닌 Esim으로 핸드폰내에서 유심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Esim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꼭 캐나다에 도착하셔서 유심을

바꿔야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계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한은행을 통해 계좌를 미리 만들어갔지만, 다른 학생들을 보니 캐나다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들**은 항공편 e-티켓 확인증(영문, 한글), 보험 확인증(영문), eta비자 신청 내역(이건 원래 영문으로 나와있습니다), 잔액-잔고 증명서(영문), 여권사본, 입학허가서입니다. 입국심사할 때 어떤 질문을 받을 지 몰라서 저는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다 복사해서 제 기내 배낭에 준비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입국 심사 때 비행기 예매 내역과 비자 내역 및 입학허가서만 확인했었지만, 혹시 모르니 다 준비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필품 준비**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필기구, 자물쇠, 핫팩, 샴푸-린스 비누, 바느질 키트, 비상약, 수건, 이불, 베게, 장판, 화장품 등 많이 준비해갔지만 막상 빅토리아에 가보니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여러가지 물품을 구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필기구나 세면도구, 샴푸, 약 같은 것들은 거기서 다 살 수 있으니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수건이나 이불, 베게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을 보니 홈스테이에 다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갈 홈스테이를 구하셨다면 어떤 물품들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저는 장판을 꼭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홈스테이는 난방을 집주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녁에 집이 엄청 추워서 다들 긴팔입고 잠바를 입고 잔다고 합니다. 또한, 저처럼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추우니 장갑과 목도리, 핫팩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 저처럼 1-4월 학기에 가신다면 봄, 여름 옷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3. 수업 정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am							
8am							
9am			HMG1-186-001				
10am							
11am				BUS-130-004		BUS-130-004	
12pm		PSYC-275-001					
1pm							
2pm			HMG1-186-001				
3pm							
4pm							
5pm							
6pm							
7pm							

저는 총 4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전공은 또 살리고 싶었어서 4개 중 전공 수업은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가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들로 선택했습니다. ‘Business Communication’, ‘Hotel Operation’, ‘Music Psychology’, ‘Literary Genres’ 이렇게 총 4개였고 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Business Communication’은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경로로 다른 사원들에게 소식을 전파해야하는지,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어떤 말투를 써야하는지, 어떻게 편지를 써야하는지, 고객과는 어떻게 대화해야하고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하는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발표해야하는지 등 정말 세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대략 30-40명 정도 듣고 교수님은 되게 친절하시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섞여있습니다. 발표와 과제, 팀플로 이루어져 있는데 난이도는 다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는 총 2번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사이트에 올려주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번째 발표는 개별 발표로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과정을 하나 골라서 ppt와 함께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떡볶이 만드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발표했었습니다. 두번째 발표는 팀플 발표인데 팀원들과 다 함께 앞으로 나가서 15분정도 발표하는 것이고 대본을 들고 나가도 되기에 영어 암기 부담감은 좀 덜어서도 됩니다. 팀플 과제는 각 팀이 회사가 되어서 교수님이 정해진 상황에 맞춰서 자신들의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안서부터 중간 점검, 발표까지 있으며 팀원 평가도 있습니다. 과제는 온라인으로 보는 퀴즈로 하나당 15문제정도 있고 또 다른 퀴즈는 오픈북으로 교수님이 정해진 상황에 맞춰 메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의 난이도는 10점중에 4점 정도로 어렵지 않지만 메일을 쓸 때 단어를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Hotel Operation'은 수업명 그대로 호텔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의 역할, 호텔 운영 방법, 재정문제, 해결방안 등 호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듣는다면 너무 재밌게 배우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대략 30명정도 듣고 교수님이 수업을 열정적으로 해주시며 팀플과 발표, 퀴즈,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플은 4명정도로 학생들이 직접 팀을 이뤄서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팀이 없거나 어떤 친구들에게 물어봐야하지 모르시겠다면 교수님께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교수님께서 한 팀에 넣어주십니다. 팀플 주제는 호텔에 앞으로 도입될 것들과 그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AI 기술 도입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 수업도 팀원 전체가 나와 20분 동안 발표를 해야합니다. 퀴즈는 4주차나 5주차에 한번 보는데 객관식으로 된 온라인 퀴즈를 봅니다. 한시간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총 두 번을 보고 2시간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35문제가 나오고 객관식 28문제, 주관식 7문제로 이루어져있으며 짧은 답변 쓰기여서 부담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난이도는 10점 중에 6점 정도로 살짝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호텔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배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암기해야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Music Psychology'는 음악의 탄생부터 음악으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교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매주 필요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긴 하지만 수업은 발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발표와 기말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는 총 3번으로 해당 주제에 맞는 주제 하나를 골라 학교 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논문을 찾아 그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ppt와 함께 5분간 발표하는 것이고 이 수업도 대본을 작성해서 가지고 나가도 되는 발표이므로 암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기말 과제 총 두 개로 하나는 논문 쓰기로 11-12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서 내는 과제입니다. 주제는 자유로움저는 두 개의 논문을 비교분석하는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music journal을 쓰는 것으로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작성해서 마지막 주까지 제출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수업 난이도는 10점 중에 5.5점으로 논문 요약이나 논문 작성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Literary Genres'입니다. 이 수업은 영어 문학에 대하여 배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주도학습이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녹음본을 듣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책에다 표시해서 작성하면서 들으면 퀴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수업은 퀴즈와 중간, 기말 과제,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퀴즈는 5-7문제정도로 간단한 소설에 대한 퀴즈이고 모두 객관식입니다. 중간, 기말 과제는 1-2페이지로 교수님이 골라준 소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고 기말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으로 250장정도 되는 작은 소설 책을 읽은 뒤, 교수님이 내주시는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제 생각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이 수업의 난이도는 8점으로 좀 어려운 수업입니다. 다른 퀴즈나 과제들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마지막 기말 시험에 필요한 소설책의 내용이 매우 어려웠고 단어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에 제가 들은 4가지 수업 중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출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글쓰기 과제를 할 때 마지막에 꼭 출처 밝히는 페이지를 포함시켜야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방법도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과제를 제출해야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과제를 하여 감점되는 일이 없게 하시면 더 완벽한 과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을 핸드폰에 녹음하여 집 와서 다시 들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노트노 적는 것까지가 아

직 익숙하지 못했었기에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옆에 첨부한 사진은 학교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본건물입니다! 이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학교 도서관과 식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약간의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건물 1층 오른쪽에 서점이 있고 왼쪽에는 식당 (카페테리아) 그리고 2층부터 그 위로는 쪽 강의실이 위치해있습니다. 서점은 깔끔하게 되어있고 학교 이름이 적혀진 티셔츠와 각종 필기구들 그리고 의과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전공복 등을 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하는 것은 책 분류가 한 눈에 알아보기 살짝 힘들 수 있어요.



카페테리아는 꽤 넓은 편이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피자과 빵들, 샌드위치, 요거트 등 간식거리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침정식이나 햄버거 치킨텐더 등 다양한 음식 또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이 아침정식이고 대부분 빵과 소시지가 주메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온 도시락을 먹거나 과자를 사먹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자주 먹습니다!



이 곳은 Fairmont Empress Hotel입니다. 빅토리아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 오래된 성을 개조해서 호텔로 만든거라고 해요! 건물 크기가 워낙 커서 낮에 봐도 정말 예쁘고 웅장한데 저녁에 야경으로 보러가면 훨씬 예쁘니 저녁에도 한번 보러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근처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거기도 조명을 달아놔서 저녁에 사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곳은 아주 가까우니 같이 구경하세요!



이 곳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빅토리아에서 유명한 Blue fox cafe입니다. 브런치 카페로 유명한 곳이고 에그 베네딕트(첫번째 사진)가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유명한 다른 브런치카페 베네딕트보다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꼭 한 번 가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저블루베리 잼도 직접 가게에서 만든 홈메이드 잼이어서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 곳도 다운타운에 위치한 유명한 브런치 카페 중 하나인 Jam Cafe입니다. 여기는 해쉬브라운과 팬케이크가 유명하더라고요! 크기도 되게 크고 맛도 있고 또 외국 나가면 팬케이크 안 먹고 올 순 없으니까요! 꼭 가셔서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곳은 유명한 피쉬앤칩스를 파는 곳입니다. Red fish Blue fish라는 이름을 가진 가게로 이너하버 즉, 항구 안에 위치해있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종이컵에 담겨 있는 클램차우더도 유명하니 꼭 가셔서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곳은 비콘 힐 파크라는 곳입니다. 이 공원에 가면 알파카, 청설모,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고 특히, 공작새를 볼 수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 바다 사진은 비콘 힐 파크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공원에서 산책로를 쭉 따라서 오다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담기지 않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곳은 부차든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처럼 장미, 안개꽃, 튜립 등 여러 꽃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테마 별로 꽃들이 꾸며져있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관광객들을 보니 돛자리를 가져와서 앉아계시기도 하고 이 곳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도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Camosun College는 학교 캠퍼스 근처에 맛집이 없어서 다운타운에 위치한 맛집이나 관광지 위주로 추천드렸습니다!

## 5. 생활비 및 지출

08:14:51	출금
WAL-MART #1214	CAD 60.67
거래원화금액	0 원
해택금액	0 원
2025.02.12	
03:20:27	출금
CAMOSUN COLLEG	CAD 15.14
거래원화금액	0 원
해택금액	0 원
2025.02.11	
07:13:16	출금
WAL-MART #1214	CAD 87.87
거래원화금액	0 원
해택금액	0 원

일단, 저는 아시는 분의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금액은 방에서 사용하고 제가 따로 먹을 음식들에 대한 가격만 지출했습니다. 방값으로는 매달 130만원정도 지출되었고 한달에 한번 마트에 갈때마다 간식거리와 샴푸, 린스 등을 구매해서 대략 6-9만원정도 지출하였습니다. 만약, 외국인 집 주인분이 운영하시는 홈스테이로 가신다면 방값에 거기서 해주시는 음식비까지 포함될 수 있어 생활비로 좀 더 지출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 캐나다 대학교 내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주는 교통카드가 있어서 교통비로는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카드는 학기 중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학기가 끝난 후에 버스를 타야한다면 Daypass 또는 Monthly로 다른 교통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앱 바코드를 찍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aypass는 6달러로 버스를 타서 기사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고 Monthly는 앱으로 결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 물가가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한번 외식하고 카페까지 가신다면 대략 3만원정도 나옵니다. 팁문화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카드 리더기에서 팁을 지불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팁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저처럼 밖에서 많이 안 사먹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대략 50만원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밖에 많이 나가시거나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고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략 한달에 70만원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지불할 금액은 각종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 수수료, Gurad.me라는 보험료, 버스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 금액은 504.6\$입니다. 교환학생으로 간 경우에는 따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수로 내야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지출 경로는 필수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가지 수업에서 다 교과서를 필요로 했었기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매하였고 총 5권을 구매하였고 234.75\$를 지출하였습니다. 모두 다 새로운 책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도서관에 가시면 secondhand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썼던 책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두꺼운 책이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기가 끝난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운영되는 과목이 있으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서 반값을 돌려받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면 책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5권 중 2권을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핸드폰 통신비로 한달에 26.88\$를 지출했고 가끔은 우버를 이용할 때 20분 거리가 대략 25.26\$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 되도록이면 버스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6. 자기평가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어학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외국인들과 프리토킹이나 전반적인 영어 수업도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외국에 직접 나가서 외국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들만 들으니 수업의 50%조차도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진짜 사소한 프리토킹을 할 기회도 정말 적었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팀플을 해야할 때 같은 팀원들과 대화할 때에도 일단 먼저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영어만 듣고 영어를 공부하고 하면서 영어를 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단어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문장구조나 숙어, 외국에서 많이 쓰는 여러 리액션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어학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영어로 대화하게 된다면 미리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말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 대신에 바로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을 캐나다로

가고 싶다고 신청한 이유도 캐나다는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친구들의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에게 필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한 번도 해외에서 생활해보지 못한 저에게 세상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생활은 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플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수업 도중에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 말을 꺼내지 못한 다던가 제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해야하는 이런 일상적인 상황도 어렵게 느껴졌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함을 많이 느꼈지만, 그때마다 제 힘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못 물어보겠다면 모르거나 궁금한 점을 쪽지로 보내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교수님과 연락하거나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익숙한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과제를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자기 주도성이 길러지고 점점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기대와 설렘으로 느끼게 되었고, 도전이라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의 시간은 단순히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만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 뒤에는 쉽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초반에는 학교에 아는 친구도 많이 없고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그 타지가 새롭게 적응해야만 하는 외국이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다보니, 한국에서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상을 그저 쳇바퀴처럼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과제하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생활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그냥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순간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는 않는 소중한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빅토리아라는 곳이 확실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그만큼 새롭고, 혼자이지만 그만큼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부러 예쁜 카페를 찾아서 그곳에서 과제를 하고, 혼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가게에 들어가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어떤 감정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익숙함에서 벗어난 이 막막함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초반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성장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경험은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